



직판장 운영해 소비촉진하는 김·천·지·부



유진현 김천지부장

돼지가 가격이 아무리 내려도 동네에서 사는 돼지고기의 가격은 산지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간유통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 소비자 가격과 산지가격과의 차이는 거의 몇 배에 달한다. 이런 불합리를 시정코자 정부는 축협을 통해 차량으로 축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나, 거의 대도시에 한정되고 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적다. 정육인들의 모임은 단합이 잘 되고 있고, 이에의해 돼지고기 가격은 전국이 거의 동일하다. 정육인 협회에서 지정한 가격대로 서로 경쟁없이 전국에서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돼지고기가 전국에서 가장 싼 곳 '김천'

생산자인 우리 양돈농가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축산물을 판매할 수만 있다면 중간 마진없이 가장 싼 가격에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농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김천지부는 이런 어려움을 지부에서 해결해 지부에서 직접 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가장 싼 가격에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천지부에서는 판매원 1명과 골반기사 1명을 따로 두고 있다. 여기서 판매되는 돼지고기는 회원농가에서 순번을 정해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냉장육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부는 돼지고기 소비촉진과 홍보, 싼 가격의 다량판매, 협회의 이미지 상승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수익 또한 적지 않다고 한다.

유진현 지부장은 "우리 김천지역이 전국에서 돼지고기가 제일 싼 곳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큼은 타 지역의 축산물 가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판장이 정육점 가격의 견제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거든요"라며 웃어보였다.

모든 회원이 규격돈 생산

김천지부는 92년 2월 17일 지부를 설립하고 초대 지부장으로 현 지부장인 유진현 지부장이 선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김천에 롯데 육가공공장이 있는 관계로 김천지부의 회원농가들은 거의 모두 규격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부를 통해 공동출하(지난해 한해동안 약 3만 3천두)를 롯데 육가공공장으로 하고 있다. 현재 32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회원들은 동시에 '김천 돼지고기 품질개선단지' 회원으로써, 김천에서 양돈을 규모있게 하고 있는 농가는 모두 협회의 회원으로 있다고 해도 될 것이라 한다. 김천지부는 설립후 그해 10월부터 시작한 축산물 직판장의 운영 이외에도 약품 공동구매 사업과 인공

수정 사업, 수출돈 공동출하 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으며, 96년 12월에는 김천호텔에서 돼지고기 시식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행사로 매년 7-8월에 선진진 견학 및 야유회를 가지며, 매월하는 월례회를 통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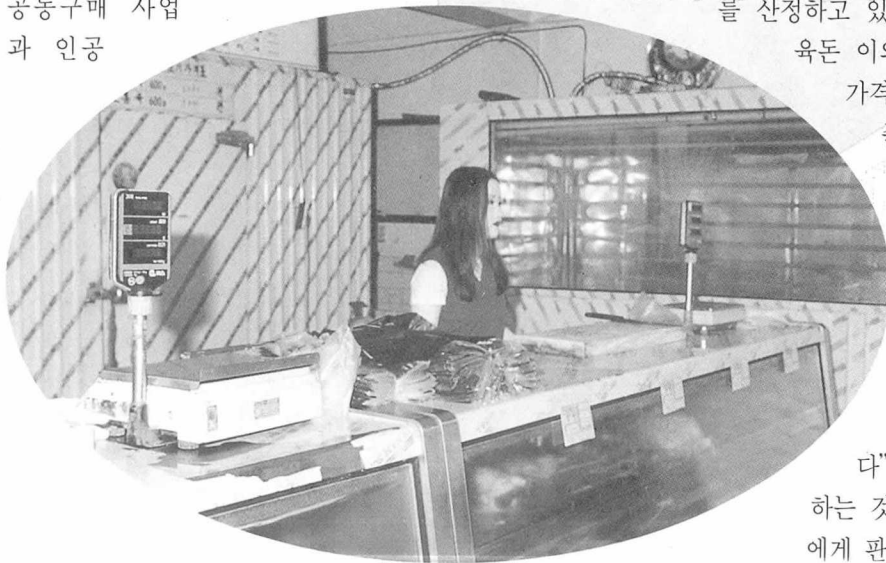
시에서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 회원들에게 혜택 줘

김천지부는 한편 현 유진현 지부장의 뛰어난 사업추진 능력에 힘입어 시와의 유대관계를 한층 더 개선시켜서 시로부터 약 3,000만원 가량을 지원받아 임신진단기, 저울, 각종 인공수정기구 등을 보급받아 회원들에게 공급하였으며, 지난해 돼지고기 가격이 폭락한 12월에는 도에서 수출단지 사료구입비 보조금으로 1억1천3백만원을 지원받아 회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등 지부가 실제로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직접 전해주고 있다.

유진현 지부장은 어려움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출하시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이용하여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육돈 이외에 모든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가격을 산정할 때 최소한 수출단지에 한해서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수출 규격돈 생산 농가의 피해를 줄여 주었으면 합니다"라며 규격돈으로 판매

하는 것이 어떤때는 일반상인에게 판매하는 것보다 더 가격을 받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했다. <취재 : 조진현> **養豚**



▲지부에서 운영하는 축산물 직판장의 내부 신선한 축산물을 항상 청결하게 공급하고 있다.